

대학생의 독서 실태와 인식 조사

권이은 청주대학교 교양대학 객원교수

- I. 서론
- II. 대학생 독자와 독자 유형 연구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요약 및 제언

I. 서론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20대 비독자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세대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청소년기를 보낸 대학생들로 ‘포노 사피엔스’, ‘Z세대’라고도 불린다. 새로운 용어로 명명할 정도로 기존 세대와 다른 특징을 가진 현재의 20대들은, 독자로서의 특징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 세대들은 10대 후반에 입시 등의 원인으로 독서 흥미가 감소했다가도, 20대가 되면 회복되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지금의 20대는 기존의 패턴과 달리 20대가 되어도 독서 흥미가 회복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이순영·안찬수·백원근·김해인·박신애, 2018).

대학생 독자 연구의 부족(서영진, 2018)은 이러한 문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학생 독자들의 독서 능력이나 독서량에 대한 연구들도 부족하지만, 특히 대학생 독자들이 현재 독자로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10대 이하 독자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현재 대학교육 담당자들은 대부분 30대 중

반 이상, 평균 4-50대로, 이들이 경험한 대학생의 매체 환경과 독서에 대한 인식은 현재 대학생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급격하게 달라진 현재 대학생들의 독서 실태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집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대 비독자화와 대학생의 독서 흥미 및 능력 저하는 국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듯하다. 국외의 대학생 독자에 대한 연구들도 대학생들의 독서 수준뿐만 아니라 독서의 가치, 독서에 대한 인식 문제, 학술적 독서에 대한 학생과 교수의 인식 차이 등의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Cisco, 2016; Howard, et al., 2018 등).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대학생을 위한 독서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생 독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대학생들은 독자로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설문과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독자 유형 분류’와 ‘대학생이 아닌 독자 집단’과의 비교의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교양 독서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대학생 독자와 독자 유형 연구

1. 대학생 독자에 대한 선행 연구

대학생 독자의 특성 연구는 대학생의 독서 능력과 관련된 연구, 대학생의 독서에 대한 인식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학생의 독서 능력과 관련된 연구인 서영진(2018)은 대학생 독자의 ‘독서 성숙도 양상’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독서 성숙도는 보통 수준에 그치고 있었으며,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응답자 비율도 40.6%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연·이공 계열 소속 학생, 고등학교 국어 성적 및 수능 국어 성적 3등급 미만 학생의 독서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생의 진학 이전 읽기 교육에 대한 경험과 대학 공간에서의 읽기 교육 실행 방향을 연구한 김시정(2018)은 읽기 연구 대상으로 대학생이 소외되어있다고 주장하며,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읽기 교육에 대한 경험과 요구를 설문하였다. 학생들은 ‘텍스트 읽기 범위의 확장: 대상 텍스트의 주제 및 장르의 다변화, 현실적 목적에서 탈피한 읽기 행위의 추구, 읽기의 현장에 수반되는 구체적 문제 해결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이 외에도 문과대학 학생들의 전공 독서 실태를 분석한 이종문·주용국(2016)의 연구, 대학생의 독서 동기와 태도에 관한 정현욱·김선남(2008)의 연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대학생 독자를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 내용을 일반화하기에는 각 대학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또한 대학생 독자를 학과나 전공에 따라 분류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으나 전공을 구분하지 않는 교양 독서교육의 입장에서 독자 유형별로 분류한 연구가 더해진다면 더 유용한 연구가 되리라고 예상하였다.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 독서에 대한 교수자와 학생의 인식 연구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을 다양한 독자 유형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독서 양상을 확인한 연구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읽을 수 있지만 읽지 않는 비독자(aliteracy)인 대학생에 대한 연구, 우수한 독서 능력을 가진 대학생에 대한 연구 등이 있었다.

학문적 독서(academic reading)에 대해 교수자와 학생 간의 인식 차이를 확인한 연구로 Howard, et al.(2018)이 있다. 이 연구는 학문적 독서에 대한 10개 항목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였고, 교수자와 학생들이 모든 항목¹⁾

1) 설문에 제시된 10개 항목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평균 비교) / 1. 학부 과정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학생과 교수자 사이의 독서에 대한 인식 차이가 확연함을 보여주는 연구로 대학생 독자의 인식이나 교수자의 전문성만으로 대학 독서교육의 내용을 구성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학문 문식성의 시각에서 인문학 전공 학생들 중 우등을 받은 사례를 연구한 Cisco(2016)는 사례의 학생이 어려운 텍스트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사례의 학생은 온라인 소스를 통해 텍스트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는 기준선 만들기(Bottom Liner), 역사적, 사회적, 권위적 맥락 연구하기(Researcher), 텍스트의 저자와 감정적으로 연결하기(Feeler)를 수행하였다.

대학생의 읽지 않음(aliteracy)에 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Chong(2016)은 유능한 대학생 독자가 읽기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는, 읽기를 포기하거나 읽기를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연구이다. 그는 말레이시아 대학생의 읽기 경험을 조사했는데, 읽기 능력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며 유능함에도 읽지 않는 독자의 사례에 접근하였다. 이 연구는 동기 부여의 다양한 수준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유능한 독자가 읽기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이론적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국외의 연구들은 독자를 성별이나 전공으로 나누어보기도 하

은 학생들을 능숙한 독자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학생<교수) / 2. 지금까지 대부분의 과정은 교과서를 기본 읽기 자료로 사용했다.(학생<교수) / 3. 나는(내 학생들은) 학술지 논문을 읽는 데 매우 능숙하다.(학생<교수) / 4. 나(내 학생들은) 내 연구 분야에서 비판적 독서가 필수적인 이유를 이해한다.(학생<교수) / 5. 교수(나)는 학생들에게 능숙하게 읽는 방법을 지속적, 명시적으로 가르친다.(학생<교수) / 6. 학생들은 학문적 읽기를 몰라도 학습해야 할 것을 학습할 수 있다.(학생<교수) / 7. 능숙하게 읽는 것과 비판적 사고 사이에는 강한 관계가 있다.(학생<교수) / 8. 나(내 학생들은) 항상 수업 전에 할당된 자료를 주의 깊게 읽는다.(학생<교수) / 9. 일부 학생은 읽기를 많이 하도록 하면 강사 평가를 낮게 한다.(학생<교수) / 10. 강사가 읽기 기능을 가르쳐 주면 감사하다(코스에서 읽기 기능을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한다.)(학생<교수)

지만 그들의 독서 수준이나 독서에 대한 인식 등 독자로서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각 독자 유형의 특성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독자 유형 연구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독자 유형 분류 방식은 이순영 외(2018)에서 처음 발표하였다. 이 연구의 제목은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 함께 읽는 2018 책의 해 독자 개발 연구 보고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독서 정책 중 책의 해를 맞이하여 진행된 대규모 조사 연구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자로서의 특성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는 독서의 당위성이 상당히 부족해진 시대로 독자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독자를 성별, 연령대 등 인구학적 정보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면서 동시에 독서 빈도에 따라 독자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에 따르면 독자들은 독서 빈도에 따라 ‘애독자’, ‘간헐적 독자’, ‘비독자’로 나누어지며, 각 독자 유형은 단순히 독서 빈도의 차이가 아닌 다양한 독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위의 보고서에 사용된 독자 유형 분류의 이론적 배경은 이순영(20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자 관련 용어의 스펙트럼을 애독자부터 책맹까지 다양하게 알아보면서 이들의 속성을 ‘독서 빈도, 독서량, 독서 능력, 독서 자발성’을 통해 설명하여 독자의 유형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 독자가 포함된, 본 연구의 연구 대상과 공통 분모를 가진 연구로는 ‘성인 애독자와 비독자의 독서 가치와 목적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김해인(2020)과 ‘2020 청소년 책의 해, 책 읽는 청소년 독자 형성 실증 연구 및 사례 조사’ 보고서(이순영·김해인·박신애, 2020)가 있다. 김해인(2020)은 본 연구와 같이 2018년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히 성인 독자에 집중하여 특징을 설명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 애독자와 비독

자는 ‘독서에 대한 가치 부여, 독서의 목적, 독서의 정서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임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 집단의 독자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이순영 외(2018)의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독서의 개념 또한 이 연구를 따르고 있다. 이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독서 정책과 관련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독서의 개념을 서책, 전자책 등 완결된 도서²⁾를 읽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III.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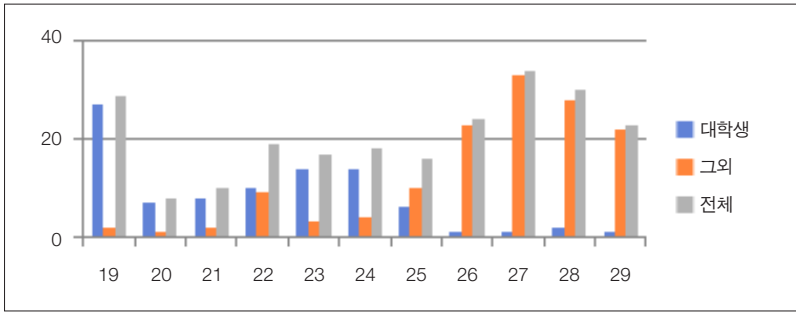
1. 자료 수집

이 연구는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 함께 읽는 2018 책의 해 독자 개발 연구 보고서’(이순영 외, 2018)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지역 층화 표집을 기초로 지역, 연령, 성별 비례 표집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수가 적어도 통계적으로 대표성을 가지는 표집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20대 집단의 설문 자료 전체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중 대학생 전환형 독자의 응답 자료이다. 대규모 연구이기에 설문으로 수집된 문항을 모두 본 연구에 반영하기보다 대학생 독자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문항만을 추려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대 전체 228명 중 대학생은 91명이었다. 다음 그래프는 228명의 연령 분포 그래프이다.

2) 만화(웹툰), 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를 제외한 일반도서(종이책 및 전자책) 읽기, 웹소설(장르 소설) 포함



〈그림 1〉 연구 대상의 연령 분포(가로: 만 연령, 세로: 인원)

2. 자료 분석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를 다양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가장 먼저 20대 집단을 애독자, 간헐적 독자, 비독자로 나누었다. 그 후, 각각의 집단에서 대학생 독자를 따로 분리하고 대학생이 아닌 독자는 ‘그 외’³⁾로 명명하였다. 독자 유형별 분류 방법⁴⁾은 자료의 출처가 같은 이순영 외(2018)의 연구를 따랐다. 20대를 위의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비율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대학생의 독자 유형별 인원 분포

		애독자	간헐적 독자	비독자	전체
대학생	명	28	57	6	91
	%	30.8%	62.6%	6.6%	100.0%

- 3) 그 외 집단은 현재 대학 재학 중이 아닐 뿐, 대학 졸업생도 포함하며 학력과 직업이 다양하다. 이 집단은 대학생 독자의 특성을 가시화하기 위해 비교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 4) 애독자: 매일-일주일에 한 번, 간헐적 독자: 한 달에 한 번-몇 달에 한 번, 비독자: 전혀 안 읽는다

그 외	명	25	99	13	137
	%	18.2%	72.3%	9.5%	100.0%
전체	명	53	156	19	228
	%	23.2%	68.4%	8.3%	100.0%

대학생 중 애독자 비율은 30.8%, 그 외 집단은 18.2%로 대학생의 애독자 비율이 더 높았다. 대학생 독자를 성인 전체가 아닌 ‘대학생이 아닌 20대 독자’와 비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독자층 특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대별로 독서에 대한 인식, 독서 실태의 차이가 크다. 그러므로 같은 세대의 특성과 비교했을 때 대학생 독자만이 가지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집단에 대한 비교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기술 통계 또는 집단별 평균 비교를 수행했으며 SPSS 27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후반부에는 전환형 독자(독자에서 비독자로 전환한 1명, 비독자에서 독자로 전환한 1명) 2인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학생일 때 독자 유형이 바뀌게 된 사례이다. 인터뷰 자료 또한 이순영 외 (2018)의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로, 다양한 유형의 독자들이 모여 수행된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룹 인터뷰에서 대학생 전환형 독자의 발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인터뷰 자료 분석은 일반화가 어려우므로 양적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학생 독자의 독서 실태 설문 결과

대학생 독자의 독서 실태를 독서량, 독자의 자기 평가, 도서 선택 시 이용 정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독서량

대학생 독자의 독서량은 1.62권으로 20대 전체 1.36권과 비교하여 약간 높은 수치를 보였다.⁵⁾ <표 2>와 같이, 독자 유형별로 독서량을 비교했을 때, 대학생 애독자는 한 달 동안 3.21권, 그 외 집단의 애독자는 3.28권을 읽었다고 응답하여 20대 애독자들의 평균 독서량에는 격차가 크지는 않지만, 그 외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외 집단 애독자의 독서량 평균값에서 표준 편차가 거의 두 권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주 많이 읽는 소수의 독자가 애독자 집단의 평균값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

<표 2> 대학생의 독자 유형별 독서량

	독자 유형	평균(권)	명	표준편차
대학생	애독자	3.21	28	1.873
	간헐적 독자	1.00	57	1.282
	비독자	0.00	6	0.000
그 외	애독자	3.28	25	3.143
	간헐적 독자	0.82	99	0.885
	비독자	0.00	13	0.000

5) 문항: 귀하는 지난 한 달 동안 일반도서(웹소설 포함)를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전체	애독자	3.25	53	2.526
	간헐적 독자	0.88	156	1.047
	비독자	0.00	19	0.000

간헐적 독자 집단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 1.28의 표준 편차가 나타나 애독자의 경계에 있는 대학생이 그 외 집단에 비해서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독자의 비율도 대학생 집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2) 독자 자기 평가

다음 질문에서는 ‘대학생들이 독자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았다.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1(매우 아니다)~5(매우 그렇다)’ 중 한 가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대 안에서는 대학생 집단과 그 외 집단을 비교했을 때, 독서량, 독서 습관, 독서에 대한 의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독서량과 독서 능력에 대한 만족감에 있어서는 평균 점수에 역전이 일어났다(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대학생 애독자와 간헐적 독자의 만족감이 그 외 집단보다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대학생들이 ‘책을 더 읽어야 한다, 독서 능력을 높여야 한다’라는 독서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준다.⁶⁾

6) 참고로 〈표 3〉에 제시된 문항에 대하여 20대 점수가 전반적으로 30대보다 낮았다. ‘나의 독서 능력에 만족한다’에 대한 평균 점수만 20대가 높았고 나머지는 모두 30대가 높았다.

〈표 3〉 대학생 독자의 자기 평가

문항별 평균 (1-5점) 독자 유형		나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이다.	나는 독서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해서, 스스로 독서를 한다.	나는 나의 독서량에 만족한다.	나는 나의 독서 능력에 만족한다.
대학생	애독자	3.36	3.61	3.71	3.00	3.29
	간헐적	2.40	2.42	2.95	2.21	2.42
	비독자	1.83	1.50	2.00	1.50	1.83
	전체	2.66	2.73	3.12	2.41	2.65
그 외	애독자	3.36	3.48	3.76	3.16	3.44
	간헐적	2.35	2.39	2.97	2.38	2.69
	비독자	1.23	1.46	1.92	1.46	2.08
	전체	2.43	2.50	3.01	2.44	2.77

3) 도서 선택 시 이용 정보

도서 선택 시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선택하는지⁷⁾에 대한 응답이다. 대학생들은 1순위로 ‘서점, 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책을 직접 보고’를 꼽았다(29.7%). 애독자 중에서는 39.3%, 간헐적 독자 중에서는 28.1%, 비독자 중에서는 0%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서점이나 도서관에 방문하여 보는 비율이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비독자 집단은 서점이나 도서관을 책에 대한 정보를 얻는 장소로 활용하지 않았다. 1순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인터넷 서점, 웹소설 사이트 등의 소개를 보고’(27.5%)로, 애독자의 32.1%, 간헐적 독자의 26.3%, 비독자의 16.7%로 나타났다.

4) 독서 영향 요인

다음으로 독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⁸⁾들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

-
- 7) ‘귀하는 책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으시나요?’에 대하여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8) ‘귀하의 독서 활동은 다음 중 어떤 항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에 대하여 3순위까지

다. 대학생들은 1순위로 ‘개인적 관심과 취향’ 40.7%, ‘하고 있는 일’ 38.5%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그 외 집단에서는 ‘하고 있는 일’ 42.3%, ‘개인적 관심과 취향’ 35.8%으로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대학생은 아직까지 개인적 관심과 취향으로 독서 활동을 유지하는 경향이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설문 대상의 연령 분포를 참고하면, 대학생 중 20대 초반의 비중이 높은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5) 웹툰, 만화책 읽기

대학생들이 애독자로 전환 가능한 범위를 좀 더 확장하여 웹툰이나 만화책 등의 읽기 자료에 대한 독서량⁹⁾을 살펴보았다. ‘매일’, ‘이삼일에 한 번’에 응답한 비율이 대학생은 31.9%, 그 외는 24.0%으로 대학생 내에서 웹툰이나 만화책을 보는 조금 비중이 높았다. 웹툰이나 만화책을 전혀 보지 않는 대학생이 20.9%(애독자 중 22.6%, 간헐적 독자 중 21.2%, 비독자 중 57.9%)로 대학생이라고 해서 웹툰이나 만화책을 많이 보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 대학생들이 영상 세대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 설문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대학생 비독자의 응답이었다. 대학생 비독자는 웹툰, 만화책도 즐겨보지 않는 비율이 다른 독자 유형에 비해 높았다. 콘텐츠와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읽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비독자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응답하도록 하였다.

- 9) 지난 1년 동안 웹툰이나 만화책을 얼마나 자주 읽으셨습니까?

2. 대학생 독자의 독서 태도와 인식 조사 결과

1) 독서에 대한 인식

다음 <표 4>는 대학생 독자의 독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이다. 20대 전 체적으로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읽는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생들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생길 때 읽는다.’고 답한 반면, 그 외 집단은 ‘책을 읽고 싶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 읽는다.’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들이 응 답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생길 때 읽는다.’는 응답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없으면 읽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대학생들이 상대적 으로 독서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 독자 에게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표 4> 대학생 독자의 자기 인식

	대학생	그 외	전체
독서에 관심이 없어서 책을 안 읽는다.	9(9.9%)	20(14.6%)	29(12.7%)
독서가 싫어서 책을 안 읽는다.	3(3.3%)	5(3.6%)	8(3.5%)
독서할 필요를 못 느껴서 책을 안 읽는다.	6(6.6%)	3(2.2%)	9(3.9%)
책을 읽고 싶지만 이해하기 어려워서 안 읽는다.	2(2.2%)	3(2.2%)	5(2.2%)
책을 읽고 싶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 읽는다.	7(7.7%)	25(18.2%)	32(14.0%)
책을 읽고 싶지만 시간 여유가 없어서 못 읽는다.	12(13.2%)	24(17.5%)	36(15.8%)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읽는다.	27(29.7%)	36(26.3%)	63(27.6%)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생길 때 읽는다.	14(15.4%)	15(10.9%)	29(12.7%)
책을 자주 읽고 또 열심히 읽는다.	11(12.1%)	6(4.4%)	17(7.5%)

2) 독서의 이유와 장애 요인

독서의 이유¹⁰⁾에 대하여 대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대학생들이 1순위로 선택한 독서의 이유는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학교 공부 취업을 위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도 3순위에서도 모두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학생들은 지식 정보를 얻는 것을 주요 독서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그 외 집단은 1순위가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위로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 2순위 응답은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 3순위 응답은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교양과 상식을 쌓기 위해서’로 나타나 응답이 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 설문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의 독서 이유가 상당히 편중되어 있음(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을 확인하였다. 독서의 이유가 다각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독서의 지속성을 떨어뜨린다.¹¹⁾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독서의 다양한 이유에 대하여 인식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이 언급한 독서 장애 요인¹²⁾은 다음과 같다. 1순위로 꼽은 것은 첫째, ‘시험 준비, 과제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 둘째, ‘독서하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였고, 2순위로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 이용으로 시간이 없어서’, ‘시험 준비, 과제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였다. 그 외 집단에서는 1순위로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독서하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를, 2순위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 이용으로 시간이 없어서’,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를 꼽았다.

10) 평소 귀하가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 이유를 선택해 주십시오.

11) 전환형 독자들의 인터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애독자는 독서의 목적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비독자는 독서의 목적을 단순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내용은 3절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12) 평소 귀하의 책 읽기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대학생들의 책 읽기 방해 요인은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 디지털 매체 이용, 독서 하는 습관의 부재’이고, 이는 20대 전체에서는 학업이 일로 바뀌는 것뿐 같은 요인을 독서의 방해 요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3) 독서 태도

독서 태도에 대한 설문은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다. 결과를 독자 유형별로 비교해보았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독서 태도에 대한 대학생의 자기 인식(평균 비교)

	대학생				그 외			
	애독자	간헐적	비독자	전체	애독자	간헐적	비독자	전체
나는 독서를 좋아한다.	3.64	2.77	2.00	2.99	3.80	2.89	1.62	2.93
독서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다.	4.00	2.88	2.50	3.20	4.04	3.13	1.85	3.18
독서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4.00	3.51	3.17	3.64	4.24	3.60	3.00	3.66
나는 시간이 나면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3.57	3.11	2.83	3.23	3.92	2.95	1.85	3.02
내가 책을 읽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기쁘다.	3.21	2.98	3.17	3.07	3.44	2.86	2.15	2.90
나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것이 생기면 독서를 한다.	3.25	3.05	3.00	3.11	3.48	2.75	1.92	2.80
나는 인터넷보다 책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좋다.	3.14	2.58	2.33	2.74	3.24	2.66	1.69	2.67

분석 결과, 대학생 비독자의 독서 태도에 대한 인식 평균이 그 외 집단의 그것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비독자가 간헐적 독자 또는 애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그 외 집단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학생 독자들이 외부의 인정과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독서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생 간헐적 독자는 ‘독서를 하려는 노력’, ‘외부적 인정’, ‘학문적 호기심’이 그 외 집단의 간헐적 독자보다 높다. 특히 ‘학문적 호기심’은 t 검정 결과 유의미하게 높았다($p<.033$). 간헐적 독자는 애독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독서 환경

다음은 독서 환경과 관련하여 수집한 문항 중, ‘소장하고 있는 책의 양’¹³⁾에 대한 응답이다.

〈표 6〉 소장하고 있는 책의 양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애독자	1	3	6	17	1	28
	3.6%	10.7%	21.4%	60.7%	3.6%	100.0%
간헐적 독자	0	14	26	17	0	57
	0.0%	24.6%	45.6%	29.8%	0.0%	100.0%
비독자	0	1	2	3	0	6
	0.0%	16.7%	33.3%	50.0%	0.0%	100.0%
전체	1	18	34	37	1	91
	1.1%	19.8%	37.4%	40.7%	1.1%	100.0%

대학생들의 독자 유형별 응답을 비교했을 때, 대학생 집단에서 독자 유형별로 책을 소장하는 양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은 심지어 비독자도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뜻으로 책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또는 학교 생활을 위한 책을 구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

13) 우리 집에는 읽을만한 책이 많다.

한 대학생 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생 독자 개발 방안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주목할만한 결과¹⁴⁾는 대학생들의 주변 독자들에게 관심 여부이다. 대학생 중 애독자와 간헐적 독자들로부터는 상대적으로 ‘그렇다’와 가까운 응답(평균 3.57, 3.26)이, 비독자는 ‘아니다’와 가까운 응답(2.67) 분포가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독자 유형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독서 여부에 관심을 갖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평소 책을 읽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주변의 책 읽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은 주변의 책 읽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대학생 전환형 독자의 인터뷰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두 명의 인터뷰 대상의 목소리를 담았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비독자에서 애독자로 전환된 ‘윤정(가명, 남)’으로, 그는 대학생이 되어 애독자로 전환된 사례이다. 두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유민(가명, 여)’으로 대학생이 되어 간헐적 독자에서 비독자로 전환된 사례이다. 이 두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설문 결과를 해석하고, 대학생 애독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 독서교육과 정책의 방향성을 탐색하였다.

1) 비독자로의 변화 과정

윤정은 인터넷 게임과 입시 준비로 인해 독서 활동이 감소하면서 비독자가 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윤정: (전략) 초등학교 때 필독도서해서 항상 어렸을 때 그걸 꼭 읽고 검사를 하

14) 나의 주변에는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나 직장 동료가 있다.

니까 그게 읽기 싫어도 억지로 읽게 되고 물론 재밌었던 것도 있는데 대부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사실 독서에 그렇게 흥미가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사실 중학생 때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도 사실 중학생 때 인터넷 게임을 막 좋아하다가 너무 그것에 빠지니까 중고등학교 때 아예 컴퓨터를 다 치워버리니까 사실 독서를 이제 조금이나마 했어요. 그때는. 그때 이제 뭐로 시작했느냐 하면 제가 만화책방가서 만화책 보고 판타지 소설, 무협소설을 빌려보고 그나마 그것으로 책을 접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입시 준비 때문에 입시에 관련된 소설 말고는 일체 책을 아예 안 봤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는 필독 도서 등을 억지로 읽다가 중학교 때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치워버리고 독서를 조금 회복한 경험, 그리고 고등학교 때 다시 입시 준비로 책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비독자가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한편, 현재 비독자인 유민은 오히려 중학생 때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학생이었고, 고등학교 때 점차 책 읽기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20대에는 책에 대한 강요가 아예 사라지고,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예 읽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유민: 초등학교 때는 습관이 되니까 읽고 학교에서 쓰라고 하고

사회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읽은 책은 학교에서 읽으라는 책들?

유민: 네. 중학교까지는 도서관에서도 읽고

사회자: 어떤 책을 읽었어요?

유민: 소설책

사회자: 중학교까지 소설책을 읽었고, 고등학교 때는 떨어졌어요.

유민: 책의 흥미가 떨어지고 생활기록부에 독후감을 써야 해서 의무감으로. (중략)

사회자: 20대에는 아예 안 읽고?

유민: 네. 책이 잡히지도 않고 책을 읽어라 하는 것도 없고,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 것도 모르겠고

위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유민은 현재 읽기 동기도 낮고, 읽기 목적도 구체적이지 않다. 유민의 짧은 대답으로도 대학생 비독자가 처한 고민을 알 수 있다.

2) 애독자로의 변화 과정

윤정은 대학에 들어오면서 책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남들은 다 읽어봤다는 유명한 소설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장편 소설부터 읽기 시작해서 흥미를 붙였다고 한다. 그리고 군대에서 ‘할 거 없을 때, 주말 같은 때’ 책을 읽는 습관이 들어 제대 후에도 정착되었다고 한다.

윤정: 그때는 아예 그냥 책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학생 때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오고부터 책을 많이 접하게 되고요. (중략) 처음에는 소설로 시작을 했거든요. 소설이 잘 읽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원래 책하고 이렇게 안 친하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소설 남들 다 한 번씩 읽어봤다고 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안 읽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되게 모자란 사람인가’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시작했어요. 소설 읽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장편소설부터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 흥미가 붙더라고요. 소설은 일단 읽히기가 쉽고 이러니까 그래서 군대 가서도 이제 사실 되게 할 거 없을 때가 있거든요. 주말 같은 때 그때도 군에서 많이 읽고 지금 제대하고서 오히려 더 그래서 더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위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윤정이 말하는 애독자로 전향의 계기는 독서하는 학내 분위기와 사회적 인정(김해인, 2020), 그리고 군에서 지내며 독서를 위한 여유 시간이 생겼다는 점이었다. 이에 더하여 군대에 있을 때 만난 멘토가 그의 독서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다음은 군에서의 독서 경험이다.

윤정: 되게 아래인 후임으로 왔는데 나이가 많으신 형님이셨는데 책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실 군대에 있는 책도 한계가 있고 종류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가 좀 봐도 되겠느냐 이렇게 시작하면서 좀 친해지고 사실 그 형님이 식견도 많으시고 학식도 있고 이래서 저한테 정확하게 책을 읽는 습관을 알려주셨어요. (중략) 어디에다가 메모를 해 두든지 아니면 중요한 데에다가 체크를 해 놓던지 그런 습관 방법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중략) 저한테 딱 맞는 책 읽는 방법을 알려 주셨어요. (중략) 제가 그 형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따라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갈구하기도 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중략) 그러니까 오기 전에 사회적 지위가 있었어서 오기 전에 나이가 있어서 저 형처럼 한 번 멋있게 살아보고 싶다 이리니까 오히려 따라하게 된 것 같아서 그 형한테 많이 물어보고 조언도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윤정은 책 읽는 방법과 관련된 코칭의 필요성을 직접 느꼈다고 한다. 앞서 우수한 독서 능력을 가진 대학생의 읽기 사례를 분석한 Cisco(2016)의 연구에서도 우수한 대학생은 다양한 읽기 전략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학생 전환형 애독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읽기 전략을 코칭 받은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는 발언이었다. 윤정은 읽기 전략을 가르쳐주는 멘토와 같은 존재가 있었고, 윤정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어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선행되었고, 그가 독서하는 모습을 닮고 싶은 내적 동기가 독서 습관을 바꾸는 데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독서에 대한 인식 차이

설문 결과와 마찬가지로 애독자와 비독자는 독서에 대한 인식에서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애독자인 윤정은 독서의 목적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양했으며 평생 독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윤정: 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책을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게 되는 것이 정보를 많이 얻고 싶을 때에 사회적 이슈나 아니면 제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뜬구름 잡지 않게 정확하게 알고 싶은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책을 읽어요.

사회자: 그런데 이제 취업을 하리게 되면 주변에 도서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0대, 40대 이후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윤정: 일단은 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만약에 아이를 갖게 돼도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아이한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게 아이한테 이제는 저처럼 이렇게 되지 않게 제가 많이 이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윤정이 말하는 독서 목적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이지만, 그 정보를 얻는다는 개념이 단순하지 않고, ‘정보를 많이 얻고 싶을 때’, ‘정확하게 알고 싶은 정보를 얻고 싶을 때’로 구체화되어 있다. 또한 현재는 정보를 얻기 위해 독서를 하지만, 미래에는 ‘아이에게 책 읽는 습관을 보여주고 싶다’는 사회적 역할 변화에 맞는 독서 목적을 인식하고 있다. 윤정은 독서 목적이 구체화되어 있고, 인생 주기의 변화에 따른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정: (전략) 왜냐하면 그때 이제 얼마 없는 또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같은 유대를 유지하려면 연대를 유지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때는 더 오히려 정기적으로 읽으려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문득문득 읽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만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쭉 주기적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여하면서.

위의 인터뷰는 독서 모임에 대한 내용이다. 윤정은 독서 모임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는 독서 모임의 장점은 ‘연대 유지를 위

한 읽기 습관 유지'와 '책에 대한 정보 제공'이었다. '연대 유지'가 읽기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서 모임 운영 방향에 대한 대학생의 의견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비독자가 다른 집단의 비독자와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특징은 '아예 책에 관심이 없는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앞서 양적연구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대학생 비독자는 소장하고 있는 책의 양에서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사회자: 그러면 교과서 외에 책을 5년 내에 샀다? 뭐 샀어요?

유민: 소설책

사회자: 소설책 뭐예요?

유민: 베르나르베르베르.

사회자: 왜 샀어요?

유민: 재미있어 보여서. 써 있는 줄거리 보는데 재미있겠다 싶어서 사서 봤어요.

(중략)

유민: 그 정도는 아니고 전공책 살 시즌에 보이면 끼워서.

사회자: 안 사도 되는데 굳이 돈 내고 샀는데 왜 샀어요?

유민: 책 소개 밑에 줄거리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재미있겠다 읽어봐야지 하면서.

사회자: 다른 책은 줄거리를 안 봐요?

유민: 책 사기 전에는 다 봐요.

사회자: 그동안 책을 안 산 이유가 줄거리가 재미 없어서?

유민: 사긴 샀어요.

사회자: 꾸준히 책을 사긴 샀어요?

유민: 네. 줄거리 보면 흑해요.(중략) 같이 조금만 더 사면 사은품이 있고. 이 책도 재미있겠다 싶어서.

유민의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꾸준히 사기도 하고, 줄거리를 찾아볼 정도로 관심을 갖기도 하나 그 흥미와 목적

의식이 유지되지 않아 독서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유민: 책 읽어야지 생각을 하는 데 학교를 다니니까 같은 사람과 얘기하고, 주변에도 책을 안 읽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카톡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점점 서로 맞춤법을 틀러가고 단어 생각을 못하고 어휘력이 많이 떨어진다. (중략) 책을 살 때도 페이스북에 책 끝을 잡다. 이런 SNS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줄거리를 훑미롭게 설명해요. 책을 광고하면서, 혹해서 샀는데 앞에서 읽어보면 그 광고랑 달라요.

유민은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주변에 책을 읽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애독자 윤정과 완전히 반대되는 목소리이다. 또한 유민의 목소리에서 독서에 대한 이중적 태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독서를 안 해서 맞춤법과 어휘력이 떨어짐을 인지하면서도 독서의 목적으로 재미를 강조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하는 것인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민의 응답에서 앞서 설문 결과에서 대학생 독자의 특성으로 밝혀진 ‘독서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그것을 독서로 연결하지 못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독서교육과 정책의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유민은 스마트폰 읽기를 하루에 3시간 정도 한다고 밝혔고, 지식 정보를 굳이 재미없는 독서를 통해 얻을 필요가 없다고도 응답하였다. 이상의 유민의 응답을 통해 유추하면, 실제로 ‘시간이 없다’기보다 독서는 재미가 없으면 타 활동의 후순위로 밀려나므로 독서보다 재미있거나 의미있는 다른 활동을 하느라 ‘독서할 시간이 없는 것’이다.

V. 요약 및 제언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독서 실태와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책과 독서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독서 목적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대학생들은 다른 20대들에 비해 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대학생들은 독서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독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코칭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독서와 멀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대학생 애독자들은 ‘책을 읽을 시간의 부족’을 가장 큰 독서 방해 요인으로 보고 있다. 대학생들이 말하는 시간의 부족이 절대 시간의 부족도 있겠으나, 다른 활동에 비해 독서를 선행위로 두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시간을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인식의 원인이 된다. 셋째, 대학생 비독자들은 독서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한 모순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생뿐만 아니라 해외의 대학생들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이었다. 넷째,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대학생 독자에게 미치는 독서 관련 요인은 독서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정, 독서하는 학내 분위기, 독서 시간 확보, 독서 방법에 대한 이해,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독서를 책(전자책 포함)을 읽는 행위로 한정하여 독서에 대한 광의의 개념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도 대학생의 독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대학 교양 독서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의 필요성, 독서 목적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돕고, 학생 스스로 독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하여 탐구할 수 있도록 교양 교육의 내용이 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독서 방법의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코칭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생을 위한 독서 코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학생

을 위한 독서교육 방법 연구와 전문가의 투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독서 멘토-멘티 활동을 권장하여야 한다. 현재 많은 대학의 비교과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는 독서 모임을 학생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학생들이 원하는 지원 방식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읽을 수 있으나 읽지 않는’ 대학생에 대한 연구, 읽기 동기가 ‘약하지만 지속되고 있는’ 대학생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을 강조하려고 한다. 읽지 않는 대학생들은 학문적 읽기를 경험할 기회를 놓치고, 추후 학문적 문식성이나 직업 문식성이 요구되는 순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 대학생들이 어떠한 이유로 읽을 수 있음에도 읽지 않는지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읽기 동기가 약하지만 유지되고 있는 비독자들은 지금 시점이 그들의 삶에서 독자로 전환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이다. 이들이 직업을 갖고 시간적 여유가 더 줄어들게 되면 애독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대학 교양 교육의 관심이 절실하다.

* 본 논문은 2021. 8. 7. 투고되었으며, 2021. 8. 15. 심사가 시작되어 2021. 9. 13.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시정(2018), 「대학생의 진학 이전 ‘읽기 교육’에 대한 경험과 대학 공간에서의 읽기 교육 실행 방향」, 『독서연구』 47, 155-192.
- 김해인(2020), 「성인 애독자와 비독자의 독서 가치와 목적 인식 비교」, 『독서연구』 56, 97-137.
- 서영진(2018), 「대학생 독자의 독서 성숙도 양상 연구」, 『국어교육』 163, 125-161.
- 이순영(2019), 「독자와 비독자 이해하기 - 용어, 현황, 특성, 생성·전환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0(6), 357-384.
- 이순영·김해인·박신애(2020), 『청소년 책의 해, 책 읽는 청소년 독자 형성 실증 연구 및 사례조사』, 서울: 2020책의해네트워크.
- 이순영·안찬수·백원근·김해인·박신애(2018),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 - 함께 읽는 2018 책의 해 독자 개발 연구 보고서』, 서울: 2018책의해조직위원회.
- 이중문·주용국(2016), 「문과대학 학생들의 전공 독서 실태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149-165.
- 정현욱·김선남(2008), 「대학생의 독서 동기와 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34(1), 323-350.
- Chong, S. L. (2016), "Re-thinking aliteracy: when undergraduates surrender their reading choices", *Literacy* 50(1), 14-22.
- Cisco, J. (2016), "A case study of university honors students in humanities through a disciplinary literacy lens", *Literacy Research and Instruction* 55(1), 1-23.
- Howard, P. J., Gorzycki, M., Desa, G., & Allen, D. D. (2018), "Academic reading: Comparing students' and faculty perceptions of its value, practice, and pedagogy", *Journal of College Reading and Learning* 48(3), 189-209.

대학생의 독서 실태와 인식 조사

권이은

이 연구는 현재 대학생의 독서 실태와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함께 읽는 2018 책의 해 독자 개발 연구 보고서’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중, 대학생들의 설문 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책과 독서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독서 목적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대학생들은 다른 20대들에 비해 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대학생들은 독서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독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코칭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독서와 멀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대학생 애독자들은 ‘책을 읽을 시간의 부족’을 가장 큰 독서 방해 요인으로 보고 있다. 셋째, 대학생 비독자들은 독서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한 모순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생뿐만 아니라 해외의 대학생들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이었다. 이와 같은 대학생 독자들의 어려움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학 교양 독서교육의 교육 내용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국어교육, 독서교육, 대학생, 독자, 교양교육

ABSTRACT

A Survey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Reading Status and Perception

Kwon Een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reading situ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examined data from university students among those collected in the “Readers, Non-Readers: 2018 YearBook” study.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niversity students were interested in books and reading. However, they did not specifically recognize reading's purpose and method. Second, they viewed a “lack of time to read” as the biggest hindrance to reading. Third, non-readers have contradictory about the purpose or necessity of reading. This is a common characteristic that can be seen not only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but also in university students from overseas.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Reading education, University students, Readers, Liberal arts education